

# 농어업·축산 비중 높은 광주·전남 상임위원장 배정 관심

### 여야, 본격 배분 조율...민주 18개 상임위 중 11개 배정 예측

### 계파 떠난 성과 중심 배정 기조...농해수위 서삼석 의원 등 기대

여야가 22대 국회 원구성 작업에 돌입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임위 위원장 선정 과정에 '계파를 떠난 성과 중심 배정'을 강조하고 있어 전남의 현안 사업이 많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전남지역 의원이 추천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여야가 조율 중이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체 18개 상임위 중 11개 이상의 상임위에 위원장을 배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서 광주·전남 지역구 초선 국회의원들은 희망 상임위를 민주당에 신청했고, 위원장 후보군이 되는 3선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상임위 배정을 위한 당내 조정 과정에서 빠졌다. 이들 의원이 이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잠정적인 상임위원장 후보군이기 때문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위원장 후보군인 3선 의원이 31명이며, 지역 안배를 위해 광주·전남에도 위원장을 1명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몇명 배정할지 여부를 여야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 여야가 극한 대립을 거듭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18개의 상임위에 위원장을 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농·어업과 축산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지역 의원의 농해수위 위원장 배정이 점쳐지고 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며 입법 등 다양한 성과를 낸 서삼석 의원의 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7건의 가결 제정안을 대표발의 하면서 제정안 발의 건수 민주당 내

1위를 차지했고, 현재 이슈가 되는 법안들도 해당 상임위 활동을 통해 최초 발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등 지원에 제외된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건의해 4차 추경에 편성, 농어민에게 실질적 지원을 이끌어 냈고, 이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씩 소규모 농어가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477억원이 반영됐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갖도록 한 계기를 만든 법안도 다수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민주당 의원 중 최초 발의했고, 정부가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생산비보장 법제화도 서 의원의 손을 거쳤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농어촌소멸위기 방지를 위한 4개의 제정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며 법·제도적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서 의원은 인구소멸위기 지원특별법 제정안 발의, 농촌공동체기반 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지역농어업 발전사업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국토외곽면적지 원법 제정안 발의에 분회의를 통과했다.

또 서 의원은 농해수위 간사 등 상임위 활동 경력 이 6년으로 현역의원 중 최장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6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농수산식품 단체인 우수의원 등 수상했으며 올해와 지난해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을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야 7당 "방송3법·언론탄압 국조 추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중민 의원 등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 '당원권 강화' 의견수렴 시작

### 오늘 소속 국회의원·전국지역위원 참여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위해 5일 소속 의원과 전국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연다.

당내에서는 이번 연석회의가 사실상 당헌·당규 개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현재로서는 개정을 관철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연석회의는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속의가 필요하다. 일각의 주장에 따라 당내 여론을 경청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예초 당 지도부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후 당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선수별 간담회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3일 이 대표와 5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국회의장의 경우 전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도부 구성대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의 20%를 반영하는 것은 무리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핵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결국은 지지층의 뜻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당원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 "따를 수밖에 없는 시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간담회 외에도 당원 게시판을 통해 당헌·당규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여기서도 대다수가 당원권 강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의 결론과 초선~3선 의원들의 의견을 마저 수렴해 조속히 결론을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 민주 "동해 석유 발표, 지지율 만회 위한 정치쇼"

### 장밋빛 발표 성급...천공 유튜브 "산유국 된다" 주장과 연관 의심

더불어민주당은 4일 동해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지지율 만회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브리핑대로 석유가 팔팔 나오면 좋겠지만, 정부가 발표한 탐사 자원량은 140억 배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의 크기'라며 "실제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밋빛 발표만 성급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런 중대한 발표에 '천공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역술인 천공이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이 나라 밑에 가스

고 석유고 많다",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한 말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통해 석유·가스 탐사 결과를 밝힌 것을 두고 지지율 만회를 위한 '국면 전환용 이벤트'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태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이 브리핑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급박한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쇼 아닌가"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도 동해 유전을 발표했지만,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생각해 볼 점은 기후환경 위기 시대에 세계적으로 석유·가스전 개발을 중단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라며 "정부 발표대로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

되는데,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심해 시추 성공 확률은 20%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하지 않느냐"며 "이 정도의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맞는가, 이게 바로 레임덕 증거"라고 비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채굴 경제성이 있다면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강한 의문이 든다"며 "특검과 탄핵이 두려워 국민의 눈을 돌리기 위한 핑수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게다가 격정되는 것이 또 있다. 혹시라도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의 의도라도 있다면 정말 큰일"이라며 "이번 정보를 미리 확보한 자들의 장난질로 수많은 개미의 피 흘림이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방평가 라운지**

###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민 참여·개발이익 공유

**이철 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나오는 개발 이익을 더 많은 지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전남도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이다.

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지난 3일 제 381회 1차 정례회 기간 열린 회의를 통해 이철(민주·완도1) 도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된 '전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통과시킨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철 의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례를 제정한 뒤 이번엔 지역 여건과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을 들어 조례 개정안에 나섰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도민들이 참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더 많은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 안팎에서는 조례 개정이 이뤄지면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인한 소득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인구 유입, 저출생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전남도는 관련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발 이익 공유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속박비·사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매출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